

'노랑조끼를 찾아주세요!'

무주반딧불축제 24개 단체 200여명 자원봉사자 활동 두드러져

한 눈에 확 들어오는 노랑조끼를 입고 무주반딧불축제장을 밝히고 있는 숨은 일꾼들이 있어 화제다. 실버 태권도 봉사단을 비롯한 24개 단체 200여 명의 무주군 자원봉사단원들이 그 주인공들.

이른 아침 축제장에 흠뻑 젖어 쓰러져 숨을 쉰다는 일부터, 흥과 환호로 가득 찼던 그날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밤늦은 시간까지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며 곳곳을 노랗게 수 놓고 있다.

관광안내소와 향교, 축제 임시주차장, 설피다리, 포차거리와 한풍루, 최북미술관, 반디랜드를 비롯해 곤충생태전시체험관과 태권도 VR체험관, 간식부스 등지에서 이들의 활약은 빛난다.

안내와 행사지원, 페이스 페인팅 등 전문봉사, 정화활동, 교통정리와 부스운영 등을 펼치며 숨은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 정성이 담긴 손길과 친절함 미소, 그리고 응대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각자의 자리에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가는 곳마다 노랑조



노랑조끼를 입고 무주반딧불축제장을 밝히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끼 입은 분들이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하더라"며 "그 분들이 모두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하고 계시는 무주군민들이라는 애길 듣고 역시 반딧불축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무주군 자원봉사자들은 "나 하나의 힘과 능력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고향사랑의 마음까지 보태지니까 보람도 커지는

것 같다"며 "무주반딧불축제가 대표 축제로 가는 길목에서 자원봉사자로 동참하게 돼서 기쁘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활동해서 역시 무주라는 찬사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막 올린 제2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3일까지 반딧불이 서식지와 납대천과 지남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유근주 진안 부군수, 현장행정 나서

유근주 진안부군수는 고향으로 부임한 이래 발로 뛰는 현장중심 행정을 펼치며 주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 부군수는 29일과 30일에도 마이산 생태공원을 비롯한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수박재배단지 등 소득사업장과, 팔포연습장 등 건설공사장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 등 16개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사업별 실패소장과 팀

장 및 주무관이 함께했다. 특히 군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체크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근주 부군수는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문제도 보이고 해결책도 보인다"면서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주ئم닉스, 진안사랑장학재단에 후원금 300만원 전달

주ئم닉스가 진안 사랑 장학재단에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진주시에 소재한 주ئم닉스는 펌프, 수문, 하수처리구, 상판 등 제조업 회사다.

박진춘 대표는 "회사 이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고 생각해 기업의 사회 환원사업을 찾던 중 고향인 진안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이사장은 "요즘 경영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하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진춘 대표

'장수사과 셋지 말고 드세요!'

세척포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장수군이 농촌진흥청 추진 지역농업 특성화 장수사과 명품화사업 일환으로 장수사과를 찾는 소비자들 안전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근 장수사과영농조합법인에 장수사과 세척포장 자동화 시스템(사진)을 구축했다.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이 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종소과 중심 소포장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장수사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장수군은 이운수 세척, 건조, 포장시스템을 갖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한 장수사과



의 활발한 유통을 기대하고 있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 외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사과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조제 안쓰는 과일조사사업, CA저장 통한 장수사과 연중 유통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애·비장애가 합하는 진안만들기 앞장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의 꿈과 열정을 키우고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0년 개관한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교육·의료·사회재활사업과 밀반찬과 난방유, 연탄, 빨간 등 결연물품 지원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직업재활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농산촌 지역으로는 전국 최초로 면단위 '좋은세상만들기 위원회' 네트워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개면(백운, 주천, 동향, 용담, 성수, 마령, 부귀)의 좋은세상만들기 위원회와 지역장애인이 연합하여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사회복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재가장애인 행복나들이 행사

대상,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 '시민사회 7대 실천덕목' 우수사례 공모 조지화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은 물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배인재 관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장애인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겠다"며 "장애인이 각종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장애와 비장애가 온전히 합(合)하는 진안세상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피그말리온 허브'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무주군 농업회사법인 무주반디팜(주)에 이어 부남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피그말리온 허브(주)가 전북도 심사를 거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다.

농업회사법인 피그말리온허브(주)는 자연농법으로 농·임산물과 양계·양돈·양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향의 주민들을 채용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팀 단위 체험, 팜 파티, 팜 스테이를 통해 마을의 농·임산물을 판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피그말리온허브(주)는 앞으로 2년간 무주군(국·도비 포함)으로부터 근로자 인건비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회적 기여도와 취약계층 고용 등 조건을 갖추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인증 요건을 갖추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우리 군에는 (췌다솜건축인테리어 1곳이 있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사회적 기업 양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운영과 경제교육, 컨설팅 진행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주군 일자리센터를 국가 고용 정보망(워크넷)과 통합·운영하며 무주군 특성에 맞는 구인·구직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효과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물관리 자동화시스템(TM/TC)을 구축해 재해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은 운영자가 현지의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CCTV를 현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무진장지사에 따르면 "올해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지사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물관리 담당자가 저수지 수위를 확인하여 공사 급수구역에 농업용수를 적기 적소에 공급해 용수절감 및 한해극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지성호우에도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사전방류 및 수위조절을 실시함으로써 농경지 및 주택 등 침수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축산인 단체 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30일 한우협회를 비롯해 한돈, 양계, 낙농, 흑염소, 공촌 등 7개 분야 축산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무진장축협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완료 협조와 2018년 축산사업 수요조사, 전북축산인 한마음대회 참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인들의 당면과제로 금년 내 완료토록 환경·건축부서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